

CONTENTS

나티컬쳐 ④	1
현장기대	2-3
꽃중갤러리	4-5
리더스초이스	6
우리꽃명품-6	7
테마시리즈-5	8-11



자재소개

특집



월드리포트

광고



우리꽃따라잡기



나티컬쳐, 그 문화로의 제언 ④ 이제 정원을 지속 가능형으로 완성하라!

전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성적이 나쁘지 않은 한해였다. 그러나 건축경기와 맞물려 있는 조경은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동철기 비수기와 내년의 경기를 장담할 수 없다고 들 난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4대강은 어쩔만 우리 조경지피생산업에 있어서는 달콤한 독배와 같은 것이었다. 많은 생산 농가나 업체들이 올린 하는 사태를 낳아 가격은 폭락했고 생산량은 과잉되어 오히려 3개월이면 거의 전량 판매되는 1년 초 보다도 가격이 낮았고 낮은 가격에도 납품을 못해 아마 이번 겨울은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내년은 4대강이라는 큰 시장도 사라졌다. 지방 하천들을 정비 한다고는 하지만 생산 재배품목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벌써 많은 조경회사와 설계회사들이 부도를 맞고 있고 특히, 이번 겨울은 가을 낙엽과 같이 쓰러질 것이라고들 한다. 자업자득이다. 우리 조경 지피생산업에 하는 많은 회사들은 지금까지는 너무 편하고 안일하게 생산하고 납품했다.

많은 조경회사들이 설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 식재해도 모른 채하고 납품 혹은 식재를 했다. 그리고 m² 당 20-50본 까지 과육을 부려 심었다. 자연에서는 m²당 어떤 식물은 1-2포

기로 모두 피복하거나 경관을 이룬다. 그러면서도 가장 자기들만의 품과 맛을 한껏 뽐내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풍나물시루와 같이 심었다. 바람만 불면 쓰러지고, 장마기엔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살아 있기는 하지만 잡초처럼 생육한다.

지금도 IMF 때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구제 금융을 받을 때는 우리 조경계는 오히려 정부의 공적자금투입과 조기 집회 기조 등으로 건설과 토목 공공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많은 현장이 있어 오히려 호황이었다. 많은 업종이 이 시기에 제철을 개선했고 그 체질개선에 성공한 업종은 지금도 매우 강건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번의 계기를 우리 조경계 모두는 체질을 개선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조경 디자인은 물론 배식과 식물특성에 알맞은 생산방식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속가능형으로 차별화 되고 유행화되는 매뉴얼을 확정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3지 포트에 작은 포기를 수를 늘려 식재하는 나라는 없다. 특히 유럽 등 선진국은 우리의 배식 형태를 이해하지 못한다. 정원에 식물을 심고 나면 그 즉시 완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2개월 혹은 거의 1년을 기다려야 한

다음페이지에 계속



ARI가든을 비롯한 우리꽃만의 식재공법으로 리모델링 스카이밸리C.C.

스카이밸리C.C.는 여주군 북내면에 위치에 있으며 36홀을 운영 중인 연 이용객만 15만 명에 달하는 골프장이다. 2년 전 우리꽃에서 3곳에 ARI가든 총 100㎡ 면적을 시공한 경험이 있다. 경관적인 아름다움, 관리의 편의성, 겨울 흙의 노출이 없고 안정적이고 풍성한 질감 등을 인정받아 올 전체에 ARI 가든과 혼합식재, 혼합종자 파종 등 전체적인 숙근조 식재에 대한 리모델링이 이뤄졌다.

올해 9월부터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전체 31구역으로 나누어 ARI가든 14개소, 혼합식재 12개소, 단일식재 2개소, 혼합파종 3개소로 거의 전 홀에 걸쳐 작업이 진행되었다. 코스는 1998년 오픈한 스카이 밸리 코스와 2002년 오픈된 마운틴, 레이크 코스로 나뉜다. 마운틴 레이크 코스는 이번 10월 26일부터 한국 프로골프투어 대회를 치른 바가 있다. 9월 초부터 시작한 공사는 대회가 열리는 마운틴 레이크 코스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ARI가든 위주의 리모델링이었다. 대부분 기존의 식생지에 있는 식물을 제거하고 다시 식재되었으며 기존의 식물은 주로 허브 계통으로 꽃이 거의 없으며 여름철, 장마철에는 생육이 불량하고 단정하지 않아 좋은 향기에도 불구하고 교체하게 되었다.



▲ 스타트홀 그늘집 기존의 암석원과 연결해서 만들어 졌다. 유동인원이 많은 장소로 연출 안정되며 보기에 무늬줄을 주로 사용하였다.

▶ 1면에서 계속



다, 그리고 잡초와 무관심과의 경쟁, 너무 많은 수로 심어진 같은 종류의 식물끼리 경쟁하게 되고 풍나물처럼 자라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요즘은 식생매트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 방식은 건전보한 것이기는 하지만 1년 이후에는 오히려 상태가 나빠지게 되고 어떤 경우는 모두 죽어 없어지기도 한다.

한국인은 참 빠른 민족이다. 식물의 특성에 구애없이 식생매트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그러나 식생가격과 같이 매트형성이 잘되고 생육이 좋은 품목은 매우 유용하고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식물들을 매트형식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난센스이기도 하다. 사실 식물이 포기를 이루는 가장 적절한 배식간격은 그 식물의 키만큼이 가장 아름다운 품을 형성한다는 게 일반적 배식 이론이다.

그렇게 하려면 한 포기크기의 크기가 식물이 자랐을 때 이루는 것과 비슷하거나 같아야 한다.

이제 3치와 4치 혹은 무조건 식생매트를 적용하는 것은 낭비와 경관을 망치는 길이며 생산 농가의 체질을 약하게 한다. 또한, 생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 적정 식재본수와는 달리 많은 종자를 투입하거나 식재본수를 늘려 비용을 많이 들게 한다. 그리고 덩펍을 주 무기로 영업을 하고 현재와 같이 제질이 아닌 영세 회사를 양산하게 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는 격이 낮은 조정으로 악습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잠시 휴식기를 갖고 체질을 개선하는 시간을 한국의 조경발전과 특히 지피조화의 적절한 적용과 다양성 및 식재와 동시에 완성되는 정원을 꿈꾸어야 할 것이다. 🍁



▲ 레이크홀 7번
원목면이 그늘집이며 멀리서 감상할 수 있게 조성 되었다. 역세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볼품함을 주었다.

▲ 마운틴 5번홀
혼합식재 구간으로 티에서 본 모습이다. 키트도로를 따라 경기 개화 품종을 길게 반복식재를 하여 화려하고 통일감이 있게 배치 하였다.

▲ 레이크 5번홀
형나루, 소형속백과 상록성의 식물들 활용
인정적인 느낌을 주도록 식물들 선정하였다.

"10월 말 완공되어 내년에는 더욱더 안정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선보일 것이다"

ARI가든은 대회를 위해 가능한 한 완성형으로 만들어졌으며 대부분 17~20분일 이상의 포기크기 8치 이상의 화분위주로 조성하였다. 식재 후 1~2년 지난 정도의 최고 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볼품함 있는 완성형의 느낌은 줄 수 있었다.

구역에 따라 각자 특성을 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라스위주의 식재로 고산의 느낌이 나며 가을 정취가 좋은 흙이 있는가 하면 화려한 꽃을 위주로 하여 아기가자하고 화려한 흙, 계절별 색을 통일해 계절감 및 통일감을 주는 흙 등으로 각자 특성 있는 홀로 만들었다. 대부분의 식재구역이 카트 도로에 인접해 있으므로 역세 파랑새, 역세 모닝라이트, 역세 리틀제브라 처럼 작아 잘 쓰러지지 않으면서 무늬와 형태가 좋은 그라스 종류와 포리풀, 숙근코스모스 노랑, 애기노랑금계국, 숙근사루비아 처럼 40~60cm 정도의 중간키를 가지며 장기 개화하는 식물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ARI가든의 경우 대부분 클립하우스 주변, 그늘집, 타주변 등 고객과 가까이 있는 곳이 위주로 시공하였고 혼합식재의 경우 카트를 타고 지나 가는 곳이나 티·그린에서 봤을 때 눈에 많이 가는 곳에 조성이 되었다. 그래서 식물들을 배치할 때도 부드러운 곡선으로 길게 그리고 반복을 했는데 자연스러워 보이며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중간중간 니포피아, 숙근대바라기처럼 이색적이며 눈에 띄는 식물로 포인트를 주었다.



▲ 마운틴 8번홀 그라스 위주의 식재다.
역세는 잘 쓰러지지 않는 역세 품종을 사용하였고 돌림을 충분히 식재해 이른봄 포인트를 주었다.



▶ 레이크 7번홀



▲ 스카이 9번홀
허브가 있던 곳으로 삼색조팝, 세덤류 등의 일색이 좋은 품종을 주로 사용하였다.

레인보우아주가

Ajuga reptans 'Rainbow'
꿀풀과. ☀️💧



잎의 무늬가 매우 이색적인 품종으로 군식을 해놓으면 시각적으로 알록달록한 느낌을 준다. 무늬가 좋기 때문에 단독식재를 해도 좋고 다른 아주가 품종과 혼식하면 포인트가 되면서 잘 어울려 음지를 밝혀줄 수 있는 소재로 좋다. 합엽수 음지에 효과적이다. 약간의 습기 있는 곳을 좋아하며 특히 건조에는 약하다. 비옥한 토양에서 더욱 좋은 잎을 보여준다.

코트너아스터

Cotonaster
장미과. ☀️🌿



상록, 반상록의 소형 관목식물이다. 접시 모양 또는 옆으로 넓적한 얇은 겹 모양의 꽃이 봄에서 여름까지 흰색 또는 분홍색으로 핀다. 잎이 매우 조밀하고 광택이 있으며 붉은 열매는 겨울에도 관상가치가 뛰어나다. 수목 아래 하부식재, 돌메지용, 석축위 식재, 암석가든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재이다.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좋아하나 대부분 건조한 조건에도 잘 견디고 염분에도 내성이 있는 편이다.

무늬비단너도부추

Ameria maritima 'Variegatum'
갯질경이과. ☀️🌿



솔잎 같은 잎 속에서 꽃대가 여러 개 올라오고 동그란 꽃을 피운다. 꽃은 진분홍색이고 잎에 노란 줄무늬가 있어 꽃이 지고 난 뒤에도 관상가치가 있다. 또한, 다른 너도부추류와 어울려 중간중간에 포인트식물로 적용해도 좋다. 대체로 건조지역에서도 잘 자란다. 너무 습기가 많거나 건조하면 접마기 혹은 겨울에 고사할 수 있다. ARI가든의 경우 3-4개의 작은 포기들 합식한다. 혼합, 혼성식재에도 좋다.

데이지 실버문

Chrysanthemum maximum 'Silver moon'
국화과. ☀️



봄의 전형처럼 잘 자라고 쉽게 개화하는 사스타데이지 계통에 속한다. 실버문은 잎의 결각이 가칠고 길쭉하게 생겼으며 꽃은 5월 하순경에 흰색으로 개화한다. 사스타데이지는 줄기가 가늘고 키가 큰 반면에 이 품종은 줄기가 곧고 튼튼하며 키가 작고 꽃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 ARI가든 단독식재 뿐만 아니라 도로변, 군식에도 이용하면 된다.

구름용담

Gentiana septemfida 'White star'
용담과. ☀️



보라색의 화색을 지닌 하늘용담과 달리 구름용담은 고급스러운 하얀색 꽃을 피운다. 하늘용담과 같이 서리가 와도 꽃을 피우며 늦가을까지 꽃이 유지되는 대표적인 가을식물이다. 양지를 좋아하고 부식토가 많은 축축한 토양을 좋아하나 반음지 혹은 일반 습윤지에서도 생육이 좋다.

무늬키버들

Salix, spp
버드나무과. ☀️💧



이른 봄 아름다운 무늬는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우며 키는 2-3m까지 자란다. 규모가 작은 소원못 또는 계류주변에 다른 수변식물 사이로 포인트식재를 해주면 좋고 큰 생태하천 주변에는 군식하여도 좋다. 수변지 뿐만 아니라 울타리용으로도 크게 각광받을 수 있는 관목소재이다.

바위솔

Sempervivum
돌나물과. ☀️🌿🌱



상록성으로 극건조지에도 매우 강하다. 작고 앙증맞은 모습을 갖고 있어 ARI가든에 알록이나 돌 틈에 심으면 효과적인 식물이다. 식재할 때는 한가지 품종보다는 다양한 품종을 적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뾰족한 마트를 형성한다. 겨울철 습기에 민감하므로 주의한다.

달개비 아이스

Tradescantia 'Billberry Ice'
달의장풀과. ☀️🌿



고급스럽고 시원해 보이는 연한 보라색 꽃이 피는 달개비 품종. 30-40cm의 초장에 6월부터 개화한다. 매일 아침에 피어 해가 강한 오후에는 빨리 시들 수 있으므로 약간의 차광이 된 곳에 식재하면 좋다. 반그늘의 숲 가장자리 혹은 아파트 단지의 반음지 등에 매우 효과적이다.

스타치스 스프레이

Stachys 'lanata'
꿀풀과. ☀️



향이 있는 식물로 벌과 나비가 좋아한다. 햇빛을 좋아하므로 물 빠짐이 좋은 양지에 재배한다. 겨울철 물이 차거나 눈에 의한 물이 고이는 곳은 파하는 것이 좋다. 스프레이형의 안개같은 연보라색 꽃이 8-9월에 개화하고 절화용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실유카 골든써드

Yucca filamentosa 'Golden Sword'
용실란과. ☀️🌿



청갈사초

Carex flagellifera spp.
사초과. ☀️🌿



적갈색의 무늬가 좋은 그라스이다. 생육이 강건하고 왕성하여 어느 곳이나 잘 자라며 색과 질감이 좋은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다. 군식을 하거나 락가든의 포인트식물 또는 디스플레이용으로 적용하면 좋고 가을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더욱 좋다.

상록양지꽃

Waldsteinia lobata
장미과. ☀️🌿



5-6월경 노랑색꽃이 피고 키는 약 10cm 정도 자라는데 런너를 뻗으면서 포복성으로 자라며 지피력이 뛰어나다. 잎은 진녹색이고 전체적으로 광택이 있어 질감이 좋다. 음지에 잘 적응하여 도심 속의 가로수 아래를 비롯하여 골프장, 식물원, 정원 등의 나무 아래를 비롯한 음지 지역에 군식하거나 수호초, 대사초류, 호스타류 등의 음지식물과 혼식해도 좋다. 번식은 봄, 가을에 런너를 떼어내어 삽목하거나 포트에 직접해주면 된다.

다람쥐꼬리세덤

Sedum acre 'Elegans'
돌나물과. ☀️🌿🌱



겨울에 상록이며 이끼와 같이 잎이 아주 작고 식물체 전체는 큰 매트를 형성하는 식물로 내한성과 지피력 그리고 회복력이 빠르다. 꽃은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연노랑색으로 핀다.

무늬꽃창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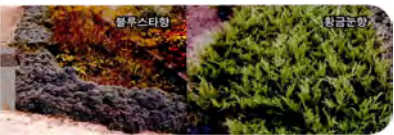
Iris ensata 'Variegata'
붓꽃과. ☀️💧



수변 및 일반지에서도 생육이 좋고 5-6월에 보라색으로 꽃이 피지만 무늬도 좋아 길옆의 라인식재 및 자연형 계류의 물 틈, 연못의 수변에도 적용하면 좋다. 또한, 잎의 무늬, 식물체의 형태가 좋아 혼합식재시 포인트 식재를 해도 효과가 뛰어나다. 주로 수변에 식재하지만 5cm 미만의 얇은 물 속에 잠겨도 생육이 가능하다.

우리꽃은 창시 이래 조경용 모종 및 종자 시장에 많은 신제품을 선보여왔다. 가우라, 숙근코스모스, 진디패랭이, 우리법면혼합종, 눈봉은필레 등등... 그리고 많은 제품들이 폭발적인 인기속에 현장에 적용되어졌고 지금도 꾸준히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큰 인기를 모으며 지금까지도 조경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우리꽃 명품'들을 다시 재조명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상록성의 건조지형 새로운 품목 눈향

상록이면서 지피력이 좋은 품종은 그리 흔치 않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눈향은 이런 면에서 매우 쓰임이 유용한 품종으로 앞으로 지피소재로 활용이 유망한 품종이다. 누워서 자라며 품종도 다양하여 형태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잎의 색깔은 블루톤으로 질감이 뛰어나고 매우 조밀하며 양분만 충분히 유지된다면 빠르게 자라 지피력이 뛰어나다. 특히 건조에도 강해 온난화의 영향으로 건조한 환경의 대안 식물로 유망한 품종이고 최근 극건조현상이 있는 국내 일기를 감안한다면 국내에서도 건조지형 식물로도 적극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화단의 피복은 물론 옥상, 법면, 사면 등의 피복용 식물로 매우 좋다. 또한, 겨울 상록이면서 색깔이 좋고 전체적인 품이 호트리지 않는 특징이 있어 라인식물로 적용하면 좋고 건조에 강하고 돌파도 잘 어울려 석축 메지용으로도 좋은 소재이다. 양치뿐만 아니라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가능하여 수목 아래 상록성의 지피식물이 필요할 때 수호초, 사사, 송악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식재 전 충분히 퇴비를 섞어주고 추후에도 양분을 적절

하게 공급해주어야 한다.

눈향 외에도 칼라가 다양한 상록성의 향나무품종이 많이 있어 앞으로 새로운 소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품종 군이다.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향나무를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품종을 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경관적으로도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눈향이 부소재로서 화분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모습

호피무늬의 안정된 초형의 억새 억새 리틀제브라



억새는 가을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이다. 대면적으로 군락식재하여 각 지역의 가을축제에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소재가 되어 있다. 몇 년 전부터는 많은 억새품종이 국내에 소개되어졌다. 잎에 무늬가 있거나, 형태적으로 다양한 억새품종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억새 리틀제브라는 억새품종 중 근래에 소개되었던 품종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억새이다. 일단 비슷한 수종인 호피무늬억새와 같이 잎에 가로로 호피무늬가 있지만, 잎이 가늘고 늘어지는 초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키는 약 170cm 정도로 알맞게 자라 일반적인 억새종류의 단정인 가을에 쓰러지는 경우가 없고 안정된 초형을 이룬다. 꽃이 만개한 가을뿐만 아니라 난갈이 늘어지는 초형과 잎의 무늬가 좋아 초여름부터 좋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억새 종류가 그렇듯이 겨울을 나고 순이 늦게 올라와 6월 정도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자라 오르기 때문에 플립 등 추식구근을 사이에 혼합식재하면 봄에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어 보완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6월 경 꽃을 피우는 꽃백합도 혼합식재하면 더욱더 좋다.

적용면에서는 화단의 포인트식물로 반복해서 식재해도 좋고 그라스원을 조성할 때 뒤쪽 라인에 포인트 또는 열식해도 좋다. 또한, 억새품종으로만 조성할 때에도 무늬억새, 억새 모닝라이트, 억새 그린라이트, 억새 파랑새 등과 혼식할 때 중간라인 정도에 배치해서 반복해주면 더욱 좋다.

겨울철 과도한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게 좋고 너무 일찍 줄기를 자르지 말고 봄 성장을 하면서 잘라준다. 번식은 이분법 포기를 분주하면 되고 이때 너무 가늘게 쪼개면 생육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충분히 분얼을 볼어서 분주 하는 게 좋으며 병해충에도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육이 강건하다.



우리드림시리즈

코스모스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친숙한 꽃이다.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며 우리의 가을 거리를 수놓는 대표적인 수종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흔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애착이 가는 꽃인 코스모스를 우리꽃에서 2005년도에 일년생이 아닌 다년생으로 시장에 선보였다. 숙근코스모스는 형태적으로 꽃 모양이나 그 느낌이 코스모스를 연상시켜 이름을 붙였으나 실제로는 코스모스 속이 아닌 코레옵시스 속이다.

월동이 가능한 종은 노랑숙근코스모스와 오펜지숙근코스모스이다. 각각 노랑계통의 꽃을 가지고 있으며 6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간개화하며 도로변, 골프장, 식물원 등 어디에서나 빠질 수 없는 대표수종이 되었다. 봄에 순이 늦게 올라오는 단점이 있으나 생육이 강건하고 꽃 수가 많고 아름다운 꽃이 오랫동안 개화되어 어떤 다른 숙근초에 비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분화용으로 유통되고 있었으나 우리꽃에서 조경용으로 충분히 적용 가능성이 있어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고 폭발적인 인기 속에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분홍, 빨강계 품종은 월동이 되지는 않지만, 그 색깔과 효과 면에서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워 일년생 대용으로 활용하거나 혼합식재화단에 점차로 일년생이 접목되는 추세로 일년생 대용으로 숙근초와도 잘 어울리는 초종이다.

생 대용으로 숙근초와도 잘 어울리는 초종이다.

특히, 우리꽃이 개발한 코레옵시스 우리드림시리즈는 흰색에서 분홍색 계열의 파스텔톤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다. 이미 일부 품종은 일본 하쿠산과 로얄티 수출계약을 맺었고 네덜란드 아르마다, 미국 로이어사와 실험계배 중이기도 하다. 우리드림시리즈는 품종이 다양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장기간 풍성한 개화를 하여 분화용으로도 매우 좋고 또한 하늘거리면서도 조밀한 연녹색 깃털 같은 잎은 암석정원의 포인트식물로도 좋다. 특히 국내에 고급 일년생 초화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드림시리즈는 생장이 왕성하고 장기간 꽃이 피기 때문에 도로화단에 고급 일년생 초화류로 적용하면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더불어 혼합식재화단에 숙근초와 어울려 식재해도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우리꽃이 개발한 우리드림시리즈는 우리꽃 최초의 로얄티품종으로 해외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국내에서도 분화용으로뿐만 아니라 고급 초화류로 조경현장에서도 적용이 기대되는 품종이다.



노랑숙근코스모스



노랑숙근코스모스



오펜지숙근코스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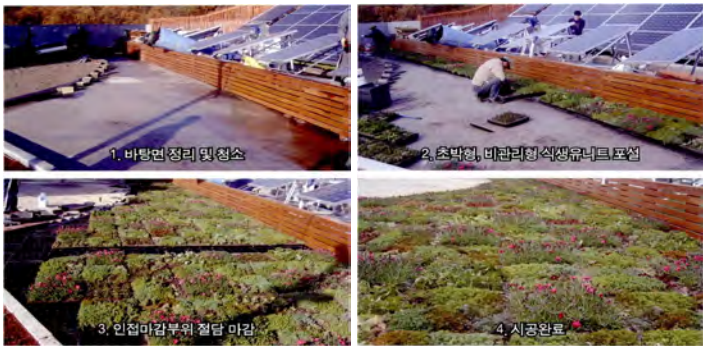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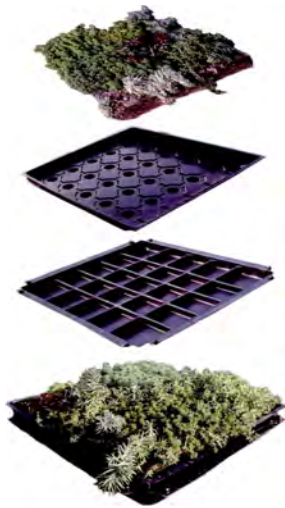
옥상녹화에 알맞은 식물

우리빛 5, 6월호 메인 테마로 옥상정원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내용의 주 테마로 구성요건 면에서 물리력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토양의 확보와 숙근초 뿐만 아니라 채소를 기를 수 있는 생환탄밭의 구비, 휴식의 공간 마련 등 문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만큼 옥상은 새로운 경관과 문화가 어울리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옥상녹화에 알맞은 식물에 한정해서, 즉 일반적인 숙근초를 중심으로 일년생식물, 구근류, 그라스류, 식생유니트를 이용한 녹화시스템, 텃밭용 소재에 대해서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옥상정원을 설계할 때 소재 선택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초박형, 비관리형 식생유니트

초박형, 비관리형 식생유니트는 개개의 배수관, 저수관, 식생기반체, 식물들이 하나로 일체화되어 현장에서 식생유니트를 배치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옥상녹화가 완료되며 포트묘를 식재하여 완성하는 기존의 공법과는 달리 사전 제배되어 90% 이상의 피복률을 갖는 식생기반체를 사용함으로써 시공완료와 동시에 경관적 효과가 발휘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최대 수분함유 시 적재하중이 m당 60kg으로 하중 걱정 없이 경량형, 중앙형 옥상녹화 어디에든 시공이 가능하다. 저수관의 수분저장 효과가 탁월하여 관수문제에 자유로워 하자발생 시 해당 유니트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유지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드레인보드 설치, 부직포 포설, 토양층 구축, 멀칭제 포설 등 불필요한 공정이 제거되어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아름다운 옥상정관을 연출할 수 있다.



숙근초 Perennial

□ 10cm 미만

대부분 포복성으로 지라는 종으로 꽃잔디류, 상록성패랭이류가 대표적이고 앞쪽의 라인식재 또는 비포장도로 침투할 때 좋다.



□ 10-30cm

하늘용담, 하늘매발톱, 등이 이에 속하고 해동종류가 많지 않아 혼합식재시 10cm 미만의 포복성 숙근초와 알리로 잘 어울려 식재하면 좋다.



□ 30-60cm

무늬원젤리카, 스텔라원젤리카 등 대부분 많은 식물들이 이에 속한다. 초장이 60cm 이상인 숙근초들 현장조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품종이 많이 있다.



그라스 Grass

그라스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조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소재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넷에서도 지면을 많이 할애하며 소개해 왔다. 품위있는 초청과 화려리한 화시와 줄기, 색깔 있는 잎 등 폭넓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그라스는 옥상녹화에서도 단연 우수한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그럼, 겨울 장미와의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옥상녹화에 그라스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양한 그라스류, 노란줄무늬대사초, 대사초(골드라이트), 올리비아 무어, 무늬줄무늬그라스, 아이스덴스, 역새, 모닝라이트, 역새, 파랑새, 줄새풀, 파니름, 홍띠

구근 Bulb

봄에 일찍 꽃을 피우는 추식구근과 여름에 꽃을 피우는 춘식구근이 있다. 추식구근은 대표적으로 튤립, 수선, 무스카리, 알리움기간티움 등이 있고, 춘식구근으로는 꽃백합, 구근 다알리아가 있다. 구근은 매우 화려한 색깔과 다양한 화색을 겸비할 뿐만 아니라 기존화단에 혼성식재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추식구근은 이른 봄꽃이 없는 시기에 옥상의 화단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이고 대표적인 춘식구근인 꽃백합은 봄, 가을에 개화하는 숙근초와 혼성식재하여 여름 공백을 아름답게 채워줄 수 있다.



알리움기간티움, 무스카리, 구근 다알리아, 꽃백합, 리아트리스, 수선, 튤립

텃밭재배 Vege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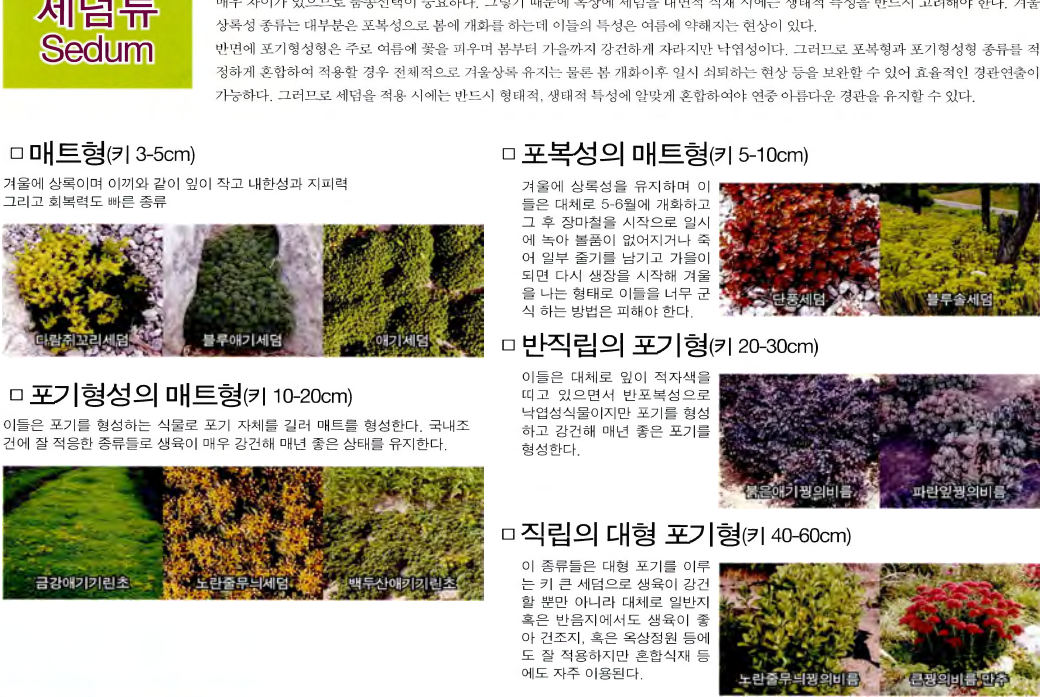
이제 옥상녹화는 꽃뿐만 아니라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작은 공간에서 스스로 즐기고 가꾸어 가면서 생활텃밭은 하나의 문화가 되어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옥상 텃밭재배는 숙근초화단처럼 텃밭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양한 용기를 이용하여 작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



미니가든, 수직 채소밭, 씨티가든 채소밭, 텃밭 화단

세덤류 Sedum

세덤은 대표적인 옥상식물로 표현하고 적용하지만 잘못 적용하면 일시에 고사하는 종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류에 따라서 특성이 매우 차이가 있으므로 품종선택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에 세덤을 대면적 식재 시에는 생태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겨울 상록성 종류는 대부분은 포복성으로 봄에 개화를 하는데 이들의 특성은 여름에 약해지는 현상이 있다. 반면에 포기형성형은 주로 여름에 꽃을 피우며 봄부터 가을까지 강건하게 자라지만 낙엽성이다. 그러므로 포복형과 포기형성형 종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적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겨울상록 유지는 물론 봄 개화이후 일시 쇠퇴하는 현상 등을 보완할 수 있어 효율적인 경관연출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세덤을 적용 시에는 반드시 형태적, 생태적 특성에 알맞게 혼합하여야 연중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할 수 있다.



□ 매트형(키 3-5cm)
겨울에 상록이며 이끼와 같이 잎이 작고 내한성과 지피력 그리고 회복력이 빠른 종류
단풍세덤, 블루에기세덤, 애기세덤
□ 포복성의 매트형(키 5-10cm)
겨울에 상록성을 유지하며 이들은 대체로 5-6월에 개화하고 그 후 장마철을 시작으로 일시에 녹아 불륨이 없어지거나 죽어 일부 줄기를 남기고 가을이 되면 다시 생장을 시작해 겨울을 나는 형태로 이들을 너무 군식 하는 방법은 피해야 한다.
□ 반직립의 포기형(키 20-30cm)
이들은 대체로 잎이 적자색을 띠고 있으면서 반포복성으로 낙엽성식물이지만 포기를 형성하고 강건해 매년 좋은 포기를 형성한다.
블루에기평의비름, 파란잎평의비름
□ 직립의 대형 포기형(키 40-60cm)
이 종류들은 대형 포기를 이루는 큰 세덤으로 생육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대체로 알방치 혹은 반음지에서 생육이 좋아 건조지, 혹은 옥상정원 등에도 잘 적용하지만 혼합식재 등에도 자주 이용된다.
노란줄무늬평의비름, 큰평의비름, 만수

일년생 초화 Annuals

옥상녹화에도 일년생 초화류의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일년생 대부분 색깔이 다양하고 화려하면서도 장기간 개화하여 숙근초화단으로 부소재로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또한 일부 구간은 일년생 초화로만 다양하게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1. 일년생, 상점초와 그라스류가 혼합식재되어 있는 구간
2. 꽃과 잎이 좋은 일년생 초화류가 단정하게 식재되어 있다
루드베키아 일년생, 마베바, 풍선초

경관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식물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장소, 풍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경자재를 이용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많은 조경용 자재를 산보하고 있다. 이번 가든마켓 자재소개에서는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조경자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이번 특집기사는 지난 10월 29일 ~ 10월 30일, 2일간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 송파구 도시농업박람회에 참관한 농업회사법인 (주)씨제트의 기사를 게재한다. 21세기 도시민들에게 신선한 밥으로 떠오르고 있고 환경적으로는 도시 온난화 방지, 공기 정화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효율적인 도시관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도시농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 편집자주 -

간편한 시공, 안정된 효과 식생거적 SM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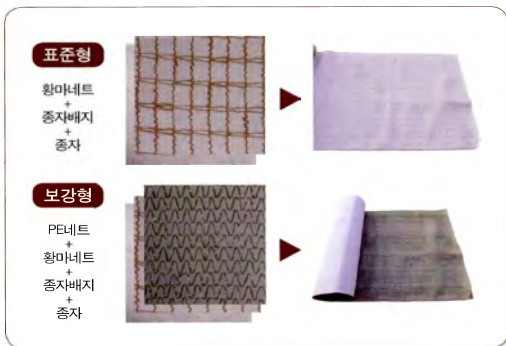
2000년대 초반 범면녹화의 새로운 소재로 선을 보인 우리범면혼합종자시리즈는 지금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이다. 골프장, 식물원, 학교 등 범면등지에 장기간 꽃으로 녹화를 원하는 곳에 적용되어 지금까지도 각 현장에 종자로 판매하거나 직접 시공을 해오고 있다. 시공의 경우 씨당만 하고 끝내거나 현장여건에 따라 씨당과 더불어 벚꽃, 코아네트 덮기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씨당과 벚꽃, 코아네트 덮기의 이원화된 공정을 일원화하며 간단히 시공할 수 있는 제품이 식생거적 SM시리즈이다.



식생거적 SM시리즈는 종자와 종이배지, 황마네트, PE네트로 이루어지는 다층 구조를 형성하며 다층구조 사이에 우리범면혼합종자가 포함되어 있어 도로, 하천, 범면 등에 한 번의 시공으로 균일한 종자 발아와 조기녹화, 차별화된 경관 조성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식

생거적 SM시리즈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시공이 매우 간편하다.
- 둘째, 물 형태의 식생거적은 무게가 가볍고 피서 고정시키는 작업공정이 매우 간편하다. 대면적에도 설치가 간편한 뿐만 아니라 면적이 너무 작아 씨드스프레이를 하기에는 비용면에서 부담이 되거나 또는 차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 현장 등 현장 여건상 씨드스프레이를 하기 어려운 곳에도 간편하게 시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셋째, 다양한 종자 적용이 가능하다.
- 현장여건과 상황에 따라 종자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식생거적 SM1은 우리의 향토종자와 관목을 적용한 산림복원용이고 SM2는 우리의 야생화와 생태하천에 적용 가능한 관목류를 혼합한 생태하천용이며 SM3는 우리의 야생화를 중심으로 26종을 혼합,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경관연출이 가능하고 SM4는 화려함을 강조한 혼합종으로 화려함과 생명력, 비 관리의 대표적인 혼합종을 적용하였다.
- 넷째, 천연재료의 사용으로 환경친화적이다.



흡착성, 흡수성, 토양 분해성이 우수한 천연재료인 황마섬유로 만들어져 토양미생물에 의해 스스로 자연 분해되며 식물생장에 유용한 유기물로 흡수되어 식물에 유용한 환경을 제공한다.

넷째, 최적의 발아 조건으로 인한 조기녹화, 시공초기에 멸칭효과가 있다. 종자의 발아를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습과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종자를 다층 구조로 덮어 주고 있어 습과 온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어 빠른 발아를 유도하여 조기녹화가 가능하다. 또한, 범면 및 나지에 빈틈없이 덮어줌으로써 시공 초기에 멸칭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구성요소에 따라 표준형과 보강형이 있다. 표준형은 종자와 종이배지, 황마네트로 이루어졌고 보강형은 여기에 PE네트가 보강되어 있어 경사도와 현장의 난이도에 따라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대표의 혼합종인 우리범면시리즈가 더욱더 시공이 간편하고, 빠른 효과를 가져다주는 식생거적 SM시리즈로 새롭게 탄생하여 범면 및 나지의 생태복원을 효과적으로 완성시켜줄 것이다.

(주)씨제트, 2011년 리브컴 어워즈 송파구 도시농업박람회를 가다!

마케팅팀 · 류정안

리브컴 어워즈란 무엇인가?

환경, 도시계획, 조경, 문화, 복지, 비전 등 도시 전반에 걸친 도시경관 노하루

에 대한 발표 및 경쟁을 통하여 선정된 도시에게 수상하는 국제적인 상이며 행사내용으로는 세계환경비전포럼, 청소년환경캠프, 녹색체험박람회, 도시농업박람회, 환경사랑 나눔장터, 환경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즐기며 살기 좋은 송파라는 느낌을 주는 도시, 송파라는 인식을 지역주민들에게 한층 더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씨제트는 이번 2011년 리브컴 어워즈 송파대회 중 도시농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전시를 진행하였다.

뒷받침자, 재빠재빠기, 미니가든, '우리꽃'에서 개발 중인 채소밭 등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하며 많은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시농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특히 부모님과 같이 온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연재부턴가 도시농업이라는 단어는 그리 어려운 단어처럼 들리지 않는다. 도시라는 생활공간에서 생산이라는 단어보다는 소비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지도 모르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극심한 환경 변화와 원자재상승,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그 이유일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 및 개인주의적인 환경에 단비를 내려줄 수 있는 희망이 도시농업이라고 본다. 이런 종류의 박람회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고 활성화되며 도시농업은 환경,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장점을 두루 나타내는 미래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길 바란다.

이미 전 세계 선진국 도시에서 주위공간을 이용한 채소 및 과일과 같은 먹거리 재배를 하는 도시농업이 문화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부의 현실적인 장려 정책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고 안전한 먹거리를 스스로 가꾸며 더욱 더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도시농업이 문화적으로 인식되고 자리 잡는 그날을 만들어 가자.

회사소개 / (주)씨제트

농업회사법인 (주)씨제트는 도시환경개선 및 도시농업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허채종자 및 묘종, 모종 등 조경에 필요한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며 이미 전국의 많은 관공서 및 거래처에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또한, 쇼핑몰 CZMART에서는 각종 씨앗, 원예 용품 등 양질의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구입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여다본 세계의 가든 센터 풍경

크리스마스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색색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특별한 기간에 들어선 것이다. 경제가 전세계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만, 이 기간만은 빗겨가는 듯하다. 기독교권의 미국, 유럽 등 해외는 말 할 것도 없고, 크리스마스 전통이라고 할 것 없는 우리나라도 이보다는 덜하지만 소비성향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독일 목재산업연맹에 따르면 2010년 성탄트리 목재로 약 2900억 그루가 팔렸다고 한다. 더 놀라운 일은 독일인들이 성탄절 휴가 기간에 지난해보다 더 많이 여행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팔린 나무의 숫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HITA(원예무역협회) 소매관리팀에 의하면, 지난해 추운 날씨와 경기불황이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은 소매 가든센터들도 뛰어난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12월 첫 3주 동안 가든용품점의 매출이 4%-20%까지 증가하였다.

가든센터들은 이러한 소비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새로운 상품들을 내놓았다. 개인의 개성과 집안 스타일에 각각 맞출 수 있는 수많은 제품들이 출현하는데 크리스마스에 빠질 수 없는 크리스마스트리와 친구장식 이외에 테이블웨어, 플라워데코, 실내의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갖가지로 준비하여 눈길을 돌릴 수 없게 만든다.

AUS GARDEN CENTER에서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고객을 위해 산타할머니가 루



돌프와 함께 바쁜시간을 쏙 빼 내어 아이들이 선호하는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들려 주는 스토리 타임을 준비했는데, 루돌프가 착한 어린이들 옆으로 다가가한다고 한다. 이 브닝라이트타임은 수천개 전구가 가든센터 천장에서 빛나는데 크리스마스트리장식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주제별 크리스마스 트리를 포함하여 독특한 손조각 장식품, 포인세티아장식 등을 볼 수 있다.

스

크리스마스 마을을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부터 오픈하여 관련 상품들을 전시, 판매한다.

바르본그랜지가든센터는 매해 크리스마스 시즌 주제를 테마로 디스플레이하는데, 올해 주제는 '빛, 카베라, 크리스마스파르트'이다. 크리스마스 시즌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크리스마스 시즌에 빠지지 않고 방송을 타는 단골영화 치타치티비행의 나르는 자동차와 영화 그린치의 매력적이고 진기한 후발마을들을 전시한다고 한다.

해외의 가든센터는 단순히 정원용품과 생화를 파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빠질 수 없는 생활문화이다. 흔히 가든센터를 정원용 대형마트쯤으로 정의하는데 이보다 더 많은 여가와 문화를 담고있는 곳이 가든센터라고 여겨진다. 온가족이 손잡고 와서 크리스마스에 거실에 놓일 전나무의 향기를 함께 맡아보고, 산타 할아버지의 동화를 듣는 아이들로 꽂차있는 가든센터가 그들 화훼 산업의 중심에 있다. 겨울이 되면 풍광 얼어붙는 우리 화훼산업과는 대조적이다.

다 더 많은 여가와 문화를 담고있는 곳이 가든센터라고 여겨진다. 온가족이 손잡고 와서 크리스마스에 거실에 놓일 전나무의 향기를 함께 맡아보고, 산타 할아버지의 동화를 듣는 아이들로 꽂차있는 가든센터가 그들 화훼 산업의 중심에 있다. 겨울이 되면 풍광 얼어붙는 우리 화훼산업과는 대조적이다.



"우리꽃은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품종 연구 개발 및 국내외 보급

다양한 조경용 묘종 및 종자 공급

혼성혼합식재

한국식 암석정원 ARI가든

식생매트 공급

수직정원 벽화수

격월간 정기 간행물 우리넷 발행

새로운 조경자재 개발

중국현지법인 일조화선자원에 유한공사

2011년, 우리꽃은 우리의 자체브랜드로 로얄티 수출의 가능성을 한번더 확인했던 해였습니다. 더욱 신품종에 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대한민국이 식물 로얄티 수출국으로 자립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조경용 묘종과 종자의 보급, 새로운 조경소재의 개발 등 우리꽃은 항상 고객의 편에서 고객을 생각하며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17 | 식물의 "잎" - ②

잎 모양

잎 모양은 한 종 안에서 다르기도 하다. 어떤 것에서는 줄기에서 잎이 나는 자리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새 나온 잎인지, 다 자란 잎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한 수생식물은 물 밑에서와 물 위에서 잎 모양이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잎의 갈라짐

단엽은 연속된 표면을 가진 하나의 잎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록 하나의 잎몸으로 이루어졌지만, 여러 형태로 갈라져 매우 다양한 모양을 갖게 되었다. 얇게 갈라지거나 혹은 우상으로 갈라진 잎은 주맥의 반 이상까지 깊게 갈라지지는 않는다. 장상 심엽과 우상 전엽의 경우, 잎은 더욱 깊게 구획화된 열편을 가진다. 복엽은 소엽으로 완전히 나누어진 잎몸을 갖는다. 장상 복엽의 경우, 잎자루 끝의 한 점에서 소엽이 나온다. 우상복엽의 경우, 소엽이 주맥의 양쪽 방향으로 자란다. 소엽은 잎자루를 갖지 않는 것도 있고, 이들 스스로 또 다시 갈라지기도 한다. 이 두 가지 형태는 복엽이 그것의 크기나 복잡한 정도에 상관없이, 하나의 독립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경우에 있어 이들은 하나의 체계로서 인정받으며, 새싹 또한 개별적인 소엽의 엽액이 아닌, 복엽의 엽액에서 자란다.



잎끝과 잎밑

잎의 끝과 밑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다. 외떡잎식물의 잎은 주로 직선모양으로 끝이 둥글거나 뾰족하다. 쌍떡잎식물의 잎은 잎자루에서 만나는 갈라진 밑과 빛물을 흘려보내는 잎 등 등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끝과 밑 모양을 보인다.



잎 가장자리

대부분 외떡잎식물의 잎은 가장자리가 굴곡 없이 매끄러우며 비교적 복잡하다. 뾰족하게 날이 선 이를 갖고 있거나, 가장자리를 따라 조그마한 곡선이 연속적으로 나오거나, 갈라지거나, 마치 발기발기 찢긴 것 같은 무늬가 깊이 새겨져 있을지 모른다. 대부분의 잎은 평평한 날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것들은 가장자리가 물결모양이거나 혹은 완곡으로 출출히 말려 있기도 하다. 가장자리에 섬모가 있기도 하다.

